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험 연구의 메타분석

이 민 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권 영 실<sup>†</sup>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20년 7월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험 연구 32편을 선정하고 79개의 효과크기를 통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종속변인은 정서(긍정정서, 부정정서), 기분 욕구(관계성 욕구, 효능감 욕구), 사회적 행동(친사회성 행동, 반사회성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사회적 배제 유형(거절, 무시/배척),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 유형(실제경험, 사이버불, 과거 회상 및 미래 예상)을 설정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는 긍정정서( $d = -.464$ )를 낮추고, 부정정서( $d = .488$ )를 높게 경험하게 하며, 관계성 욕구( $d = -.897$ )와 효능감 욕구( $d = -1.887$ )를 크게 위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인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켰다( $d = .876$ ). 사회적 배제의 효과는 배제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정서 변인과 기분 욕구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사회적 배제, 정서, 기분 욕구, 사회적 행동, 메타분석, 효과크기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권영실,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Tel: +82-2-820-6807, E-mail: kys2018@cau.ac.kr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자연스럽게 평생동안 사회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Baumeister & Leary, 1995). 동호회모임 등과 같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SNS 등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활발하게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듯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사람 간의 사이가 연결되고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움을 경험하고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심리학자가 평정한 한국인의 외로움 지수는 100점 중 78점에 달하였고(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OECD, 2019).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는 유명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가 확산되면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서부터 미묘하게 집단에서 따돌리는 것까지 우리 사회에 사회적 배제가 만연해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란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집단에 의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Baumeister, DeWall, Ciarocco, & Twenge, 2005). 사회적 배제는 거절(rejection)과 무시/배척(ignorance/ostracism)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된다(Blackhart, Nelson, Knowles, & Baumeister, 2009). 거절은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 연결, 수용에 대한 동기, 욕구를 표현하였으나 명백하게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무시/배척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대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는 거절이며, 거절과 달리 분명한 배제의 사인이 없으나 미묘한 배제를 경험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세 용어는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거나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인간의 삶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을 덜 위협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효과적인 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Cohen, 2004). 이는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줄 뿐만 아니라 사망률 감소 및 면역 반응과 같은 신체 건강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Cohen, Kaplan, Cunnick, Manuck, & Rabin, 1992; Cohen, Mermelstein, Kamarck, & Hoberman 1985; Rosengren, Orth-Gomer, Wedel, & Wilhelmsen, 1993). 그러나, 사회적 연결에 실패하여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사회적 배제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부정적인 기분을 더 보고하고 긍정적인 기분은 덜 보고하였다(Baumeister et al., 2005; Blackhart et al., 2009; Gerber & Wheeler, 2009) 그러나, 무감각 가설(numbsness hypothesis; Baumeister, 2005)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적 거절 직후에는 정서적인 무감각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고통의 역치(threshold)와 감내력(tolerance)이 극적으로 증가하여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insensitivity)하게 된다(DeWall & Baumeister, 2006). 우리 신체에서는 물리적 상처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아편계 물질을 분비해 잠시 고통으로부터 둔감해지도록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심리적 상처도 즉각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잠시 무감각해진다. 심각한 심리적 고통은 이러한 무감각 상태가 지나가고 지연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실험 연구는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 연구 참가자의 즉각적인 정서 반응을 측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서 반응을 나타내기보다는 무감각한 상태를 보고할 수 있다. 몇몇 메타연구에서 본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적 배제 경험 후에 나타나는 정서적 마비를 효과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하였다(Blackhart et al., 2009; Gerber & Wheeler,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간 비교 대신 척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서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유의한 정서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부분적으로 무감각 가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험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조작하여 측정된 정서 상태가 무감각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지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통 사회적으로 포함된 socially included)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스토크스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Williams, Cheung, & Choi, 2000). 즉, 이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였을 때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집단에 대한 낮은 집착력을 지각하였으며, 소속의식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집단에 동조하

는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의식을 다시 얻으려는 시도, 즉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Lakin, Chartrand, & Arkin, 2008), 다른 사람이 많이 구매하는 물품을 더 선호하는 모방소비 태도가 나타났다(선홍청, 박세범, 2019; Mead, Baumeister, Stillman, Rawn, & Vohs, 2011).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집단 구성원의 행동에 동조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반사회적인(antisocial) 행동이 증가하거나 친사회적인(prosocial) 행동이 감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그리고 Bartels(2007)는 사회적으로 배제를 당한 사람이 학생 기금에 돈을 덜 기부하였고, 추가적인 실험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꺼렸으며, 작은 사고 후에 도움을 덜 주었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학생과 함께 하는 혼합 동기 게임(mixed-motive game)에서 덜 협조적이었으며, 심지어 가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대상으로 향한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배제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는 배제로 훼손된 자신의 존재감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보이며, 이러한 시도는 자신을 배제한 사람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어 멀어짐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과시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난다(김영리, 한승희, 2014; 오민정, 황윤용, 2015; Lee & Shrum, 2012; Wan, Xu, & Ding, 2014).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한 이러한 행동 양상의 차이는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욕구를 위협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좌절시키고, 이로 인해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Murray, 1938; Gerber & Wheeler, 2009). 사회적 배제는 주로 소속 욕구에 대한 좌절을 유발하나(Baumister & Leary, 1995; Leary, 2005), 소속 욕구를 포함한 4가지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 자존감, 통제, 의미있는 존재에 대한 욕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Williams, 2002; 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특히, 배척은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크게 위협한다. Williams의 배척에 대한 욕구 위협이론(the need threat theory of ostracism; Williams, 1997)에 따르면 배척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과의 소속감을 박탈한다. 또한, 배척은 암묵적인 피드백 즉, 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려는 관계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만들며, 더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의미 있는 존재감을 위협한다. 배척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절도 기본 욕구를 위협하는데, SNS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게시물에 ‘싫어요’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하여 사회적 거절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반응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는 경우 모두 4가지 기본 욕구에 위협을 받았다(Lutz & Schneider, 2020).

이러한 4가지 욕구는 크게 소속감과 자존감으로 구성된 관계성 욕구(relational needs)와 통제와 의미있는 존재로 구성된 효능감 욕구(efficient needs)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Lee & Shrum, 2012). 관계성 욕구는 좌절된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도록 동기화

하는데 이는 거절된 사회적 관계를 재연결시키고자 친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효능감 욕구는 자신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시도를 하도록 동기화하는데 이는 사회적 손실보다는 새롭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관계에서도 통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반사회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사회적 행동의 양상은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정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의 차이는 사회적 배제에 따라 손상되는 기본 욕구가 달라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로 인해 손상된 욕구의 수준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나 대부분 욕구의 유형을 함께 살펴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배제를 실험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과제도 과거 경험 회상 및 미래 경험 예상(송호준, 김남희, 천성용, 2017; 조영혜, 2019),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배제 경험 유도(이국희, 2019a, 2019b), 가상의 상황(시나리오)을 통한 유도(이준수, 김지호, 2020), 사이버불 게임(심재윤, 2020)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사회적 배제가 기본 욕구와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화하기 어렵고, 사회적 배제의 어떠한 유형이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주제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계량화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인 메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한 기본 욕구의 손상 수준과 사회적 행동의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탐색적

인 수준에서 하위집단(subgroup) 분석을 하여 사회적 배제를 경험함으로써 손상된 욕구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치가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에 따라 메타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Blackhart 등(2009)이 사회적 거절과 관련된 192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정서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Gerber와 Wheeler(2009)도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거절에 대한 88개의 실험 연구만을 대상으로 정서, 각성, 자기존중감, 행동 반응(소속 및 친사회적 욕구 반응, 통제 및 반사회적 욕구 반응), 가치있는 존재 욕구 등 여러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Hartgerink, Beest, Wicherts와 Williams(2015)는 사이버불 게임 패러다임을 사용한 120개의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인간관계적 변인(예: 기부 행동, 도움 행동, 자원 분배, 공격성 등), 개인적 변인(예: 분노, 자기 존중감, 통제감, 생리적 측정치 등), 기본적 욕구(예: 소속감, 자기존중감, 통제감, 가치있는 존재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 메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배제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자존감을 감소시키며, 기본 욕구를 위협하였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효과 크기는 중간에서 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대상으로는 메타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한국은 상호의존적인 자기(interdependent self)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Markus & Kitayama, 1991)

기준에 수행된 3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와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집단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차이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적 배제 연구를 종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개별 연구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제의 효과가 배제의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거절과 무시/배척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배제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기본 욕구가 위협을 받고, 동기가 활성화되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Molden et al., 2009; Lee & Shrum, 2012)를 고려하여 배제의 유형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이버불 게임과 같은 무시/배척 패러다임이 정서 각성과 자존감 감소에 대한 효과 크기가 가장 컸고 거절 회상 및 점화 패러다임이 효과 크기가 가장 작았다는 메타분석 연구(Gerber & Wheeler, 2009)에 따라 배제 패러다임 유형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적 배제 연구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배제로 유발된 정서 상태, 기본 욕구, 그리고 사회적 행동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배제로 인해 손상된 욕구 유형에 따라 사회적 행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고, 사회적 배제의 효과가 조절변인(배제 유형,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회적 배제에 따른 정서 변인, 기분 욕구 변인, 사회적 행동 변인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2. 사회적 배제에 따라 손상된 욕구 수준에 대한 처치가 사회적 행동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사회적 배제에 따른 효과 크기는 조절변인(배제 유형,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1) 정서 변인에 대한 효과 크기는 조절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2) 기분 욕구 변인에 대한 효과 크기는 조절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3) 사회적 행동 변인에 대한 효과 크기는 조절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 방 법

### 연구 수집 및 선정 과정

본 연구는 2020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및 그 외 미출판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의 학술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의 KCI,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 국회도서관을 통해 검색하였고, 검색 키워드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 거절’, ‘사회적 배척’, ‘배제’, ‘거절’, ‘배척’이었다. 또한, 국내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social exclusion”, “ostracism”, “social rejection”, “exclusion”, “rejection”와 “Korea”를 함께 검색하였다. 연구 제목과 초록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배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미출판 논문은 1,222편으로 검색되었다. 검색된 연구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총 1,227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되는 논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논문, 학위논문과 포스터 발표 중복 등의 이유로 중복된 논문과 실험 연구가 아닌 논문을 1차적으로 제외한 결과 145편이 남았다. 중복되는 논문의 경우 논문의 내용이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학위논문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후,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논문 5편, 원문에 접근이 불가하여 전문 분석이 불가능한 3편을 제외하였다.

전문 분석을 하면서 표 1에 제시된 문헌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에 부적합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의 선정 기준은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가이드라인(Moher, Liberati, Tetzlaff, & Altman, 2009)의 PICOS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 개입, 비교 집단, 연구 결과, 연구 설계에 대한 논문의 선정 및 배제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분석에는 실험 연구로 수행된 논문만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국인 혹은 미국인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 대상에 맞지 않는 연구 6편, 무작위 배정의 절차가 누락된 연구 30편, 비교집단이 부재하거나 단일군 대상 연구 31편, 참가자 내 설계 및 질적 연구 7편,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없거나 종속 측정치가 불충분한 연구 34편

표 1. 연구의 선정 기준

연구 특징	선정 기준	배제 기준
연구 대상자 (Participants)	전 연령, 모든 성별, 모든 임상군, 한국인 포함	외국인 및 국외거주자
개입 (Intervention)	사회적 배제/거절/배척에 대한 실험적 조작(처치)이 이루어진 연구	처치 조건에 대한 무선향당 절차가 누락된 연구
비교 집단 (Comparisons)	무처치 통제집단 또는 대안적 처치 집단이 있는 연구	단일 사례나 단일군 대상 연구
연구 결과 (Outcomes)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는 연구 종속변인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양적 측정치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연구	질적 연구 종속변인의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양적 측정치가 모두 누락된 연구
연구 설계 (Study design)	실험설계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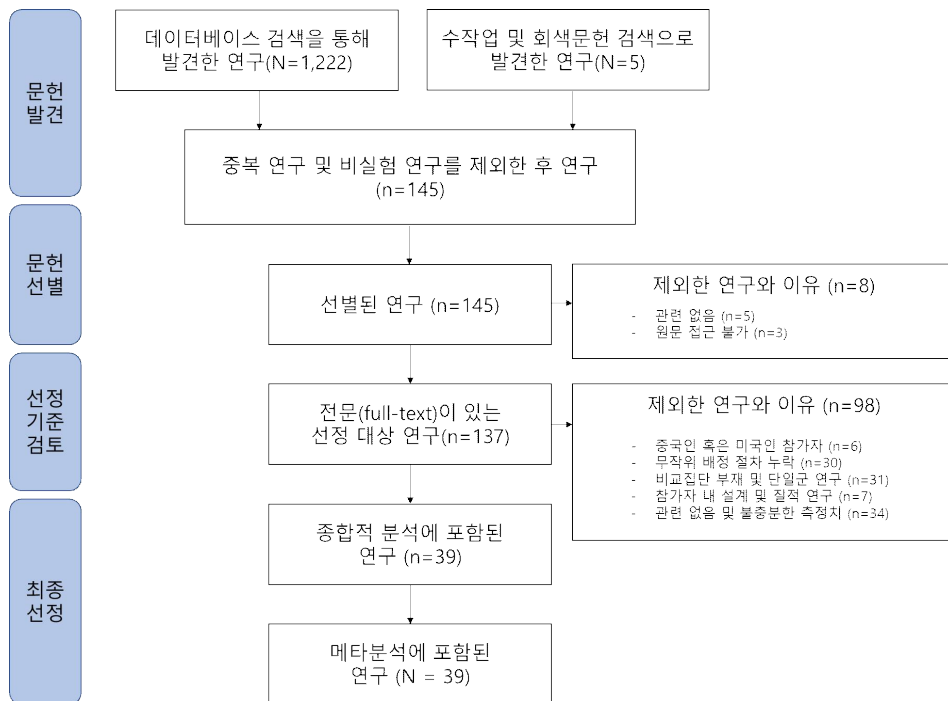


그림 1. PRISMA 흐름도



을 제외하였다<sup>1)</sup>. 이러한 과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39편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sup>2)</sup>. 연구의 수집 및 선정 과정은 그림 1의 PRISMA 흐름도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분석 대상 연구의 특성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자료 코딩 및 범주화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 과정 대학원생 1인과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으로 평정자를 구성하여 코딩을 진행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가 각 연구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료를 코딩한 후 코딩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의견이 다른 항목은 평정자가 함께 논의하여 코딩하였다.

코딩 항목은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 표본/연구 설계/조작에 대한 자료, 그리고 측정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는 코딩번호, 연구자, 출판 연도, 연구 제목, 자료 유형 등에 대하여 코딩하였다. 표본에 대한 자료는 연구 대상, 연령, 표집 지역, 성별에 대하여 코딩하였고, 연구 설계에 대한 자료는 연구 디자인, 전체 사례 수, 실험집단/포함집단/통제 집단 수 등을 코딩하였다. 조작에 대한 자료는 사회적 배제 요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코딩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배제 유형(거절/무시), 배제 패러다임 유형(실제 경험/예상 및 과거 경험)이 이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효과크기에 대한 자료는 측정변인, 측정도구, 욕구 유형 하위집단, 실험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통제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성되었다. 효과크기에

대한 자료 중 평균과 표준편차 정보를 논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t$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측정변인을 이분형 변수로 측정된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건발생수로 이분형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각 연구에서 측정된 심리적 변인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고려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크게 정서 변인, 기본 욕구 변인, 사회적 행동 변인으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정서 변인은 크게 긍정정서 변인과 부정정서 변인으로 구분되었다. 긍정정서는 PANAS의 긍정정서에 해당하는 PA 측정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기분 측정치를 포함한다. 부정정서는 PANAS의 부정정서에 해당하는 NA 측정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는 부정 기분 측정치, 우울, 모멸감, 슬픔 등 개별적인 부정정서 측정치가 포함되었다. 기본 욕구 변인은 관계성 욕구 변인과 효능감 욕구 변인으로 구분되었다. 관계성 욕구는 기본 욕구 중 소속감과 자존감 욕구 측정치로 구성되었고, 효능감 욕구는 통제감과 존재감 욕구 측정치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행동 변인은 친사회성 변인과 반사회성 변인으로 구분되었다. 친사회성 변인은 관계성 욕구를 위하여 사람에게 접근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포괄하는 변인으로, 기부행동, 친사회적 행동, 접근행동, 모방소비, 적극적 여가 등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반면에, 반사회성 변인은 효능감 욕구를 위하여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포괄하는 변인으로, 회피행동, 공격성, 과시 행위, 독특성 소비, 소극적 여

1) 전문 분석부터 한편의 논문에 여러 연구가 실린 경우, 각 연구를 독립적인 한 편의 연구로 구분하였다.  
2) 39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였으나 분석 과정에서 각 종속변인별로 이상값에 해당하는 연구의 효과크기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2편의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 결과를 산출하였다.



가 등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개인의 독특성과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 행동 변인을 측정된 연구 중 사회적 배제와 기본 욕구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를 활용하여, 각 욕구를 조작한 조건에 따른 사회적 행동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를 코딩하고 하위집단(subgroup) 분석에 활용하였다. 하위집단인 욕구유형은 측정변인의 범주화와 마찬가지로 소속감과 자존감 욕구와 관련된 관계성 욕구, 통제감과 존재감 욕구와 관련된 효능감 욕구로 구분되었다. 각 연구에서 하위집단 욕구유형은 해당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처치된 고(高) 조건과 그렇지 않은 저(低) 조건으로 조작되었다.

조절변인은 배제 유형, 배제 패러다임 유형으로 구성하여 범주화하였다. 배제 유형은 직접적인 배제의 의사가 표현 및 전달된 거절과 직접적인 배제의 의사가 표현 및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암묵적(간접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무시로 구분하였다. 배제 패러다임 유형은 사회적 배제를 실험연구 환경 내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 경험과 실험실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배제 경험을 예상하거나 과거의 배제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예상 및 과거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경험 중에서 사이버볼 게임은 실제 경험 패러다임 중에서도 사회적 배제 연구에 독립적으로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사이버볼로 범주화하였다.

## 자료 분석

분석을 위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결과를 효과크기(effect size: ES)로 산출하였다<sup>3)</sup>. 효과크기는 집단 간 평균 차이를 통합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화된 평균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 Cohen's  $d$  값이 효과크기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정 가중치로  $d$  값을 교정한 Hedges'  $g$ 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조작 방법, 측정 도구 등에서 서로 상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선택하였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효과크기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Cohen(1988)의 기준에 따라 .20 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50 이면 중간 효과크기, .8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각 연구에서 산출된 효과크기 간 차이인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시각적으로 효과크기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forest plot을 산출하고, 효과크기의 이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로 관찰된 분산  $Q$  값과 총분산에 대한 실제분산 비율  $I^2$  값을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Q$  값의 유의확률이 .10보다 작은 경우에 이질성이 높다고 판단하고(Higgins & Green, 2011),  $I^2$  값이 50%이면 이질성이 중간 크기정도, 75% 이상이면 매우 큰 것으로 해석한다(황성동, 2014).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질성에 기여하는 조절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Meta-ANOVA를 활

3) 이상값 분석 제외: 표준화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의 Z값이 1.96(95% 신뢰수준)을 초과하면 이상값으로 간주하므로(황성동, 2014), 이에 해당하는 연구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배제 유형, 배제 페러다임 유형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 분석에는 이질성을 의미하는  $Q$  값을 활용하였다.  $Q$  값이 유의한 경우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은 조절변수당 최소 10개의 연구가 필요하므로(황성동, 2014), 분석이 가능한 연구가 10개 미만이면 주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검증을 통해 출판된 연구의 결과가 모든 연구의 결과를 잘 대표하는지 그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표본의 수는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출판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면 편향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황성동, 2014). 먼저 평균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각 효과크기가 대칭을 이루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unnel plot을 산출하였다. 표본 크기와 효과크기 간 비대칭이 나타난다면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Egger의 회귀분석(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을 통해 대칭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회귀식의 절편에 대한 검증값의 유의도를 확인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출판편향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오류가 연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trim-and-fill 기법(Duval & Tweedie, 2000)을 통해 대칭으로 교정하여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평균 효과크기, 이질성 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출판편향 검증은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인 CMA 3.0(Comprehensive Meta Analysis Version 3.0;

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13)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평균 효과크기

종속변인별 평균 효과크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전, 각 종속변인별로 이상값(outlier)에 해당하는 연구의 효과크기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이상값은 긍정정서 변인에서 3개, 부정정서 변인에서 2개, 관계성 욕구에서 2개, 친사회성 변인에서 4개, 반사회성 변인에서 1개였다. 이에 따라, 전체 32편의 연구를 통해 79개의 효과크기를 확인하였고, 종속변인별로는 긍정정서 변인에서 10개, 부정정서 변인에서 14개, 관계성 욕구에서 9개, 효능감 욕구에서 7개, 친사회성 욕구에서 19개, 반사회성 욕구에서 20개의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사회적 배제에 따른 종속변인별 평균 효과크기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서 변인 중 긍정정서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464(95\% \text{ CI: } -.752 \sim -.177)$ 로서 유의하였고, Cohen(1988)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 정도에 가까운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부정정서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488(95\% \text{ CI: } .195 \sim .782)$ 로서 그 값 또한 유의하게 중간 정도에 가까운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조건이 포함 조건보다 유의하게 중간 정도의 크기로 긍정정서가 낮고 부정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욕구 변인 중 관계성 욕구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897(95\% \text{ CI: } -1.265 \sim -.530)$ 으

로 유의하였고 큰 편에 해당하였다. 효능감 욕구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1.887(95% CI: -2.653 ~ -1.121)로 유의하고 큰 편이었다. 효능감 욕구 변인은 종속변인 중 가장 큰 효과크기로 산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조건이 포함 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정도의 크기로 관계성 욕구와 효능감 욕구가 더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 변인 중 친사회성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174(95% CI: -.680 ~ .332)로 나타났으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반사회성 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는 .876(95% CI: .020 ~ 1.733)으로 유의하였고 큰 효과크기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조건이 포함 조건보다 유의하게 큰 정도의 크기로 반사회적 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사회적 행동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인 모두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긍정정서 변인은  $Q=103.659$ ,  $p<.001$ ,  $I^2=91.318$ , 부정정서 변인은  $Q=94.693$ ,  $p<.001$ ,  $I^2=86.271$ , 관계성 욕구 변인은  $Q=61.543$ ,  $p<.001$ ,  $I^2=87.001$ , 효능감 욕구 변인은  $Q=48.125$ ,  $p<.001$ ,  $I^2=87.533$ , 친사회성 변인은  $Q=896.704$ ,  $p<.001$ ,  $I^2=97.993$ , 반사회성 변인은  $Q=2285.067$ ,  $p<.001$ ,  $I^2=99.169$ 로 나타났다.

### 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집단(욕구 변인) 분석

사회적 배제에 따른 사회적 행동의 효과가 사회적 배제의 하위집단인 기본 욕구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친사회성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은 관계성 욕구과 효능감 욕구,

표 2. 사회적 배제에 따른 평균 효과크기

종속변인	k	ES(g)	95% CI		Q	p	I <sup>2</sup>
			LL	UL			
긍정정서	10	-.464	-.752	-.177	103.659	<.001	91.318
부정정서	14	.488	.195	.782	94.693	<.001	86.271
관계성 욕구	9	-.897	-1.265	-.530	61.543	<.001	87.001
효능감 욕구	7	-1.887	-2.653	-1.121	48.125	<.001	87.533
친사회성	19	-.174	-.680	.332	896.704	<.001	97.993
반사회성	20	.876	.020	1.733	2285.067	<.001	99.169

표 3. 친사회성 행동에 대한 하위 집단(욕구 변인) 분석

하위변인	구분	k	ES(g)	95% CI		Q	df	p
				LL	UL			
기본 욕구	고 조건	11	.359	-.263	.981	9.918	1	.002
	저 조건	11	-1.060	-1.686	-.433			

그리고 두 욕구 유형을 모두 포함한 기본 욕구 변인에 대하여 각각 결과를 표 3과 같이 산출하였다. 기본 욕구에 따른 효과크기는 욕구 처치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였다( $Q=9.918, df=1, p=.002$ ). 높은 욕구 수준의 처치가 .359(95% CI: -.263 ~ .981)로 유의하지 않았고, 낮은 욕구 수준의 처치가 -1.060(95% CI: -1.686 ~ -.433)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본 욕구에 대한 낮은 처치 수준에서 사회적 배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게 만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회성에 대한 하위집단 분석은 해당하는 연구의 수가 적어서( $k=3$ ) 분석할 수 없었다.

### 조절효과 분석 결과

#### 정서 변인

정서 변인 중 긍정정서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

표 5. 긍정정서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변인	구분	<i>k</i>	<i>ES(g)</i>	95% CI		<i>Q</i>	<i>df</i>	<i>p</i>
				<i>LL</i>	<i>UL</i>			
배제 유형	거절	5	-.311	-.677	.045	15.215	1	<.001
	무시	2	-1.420	-1.849	-.991			
배제 패러다임 유형	실제 경험	4	.018	-.069	.106	44.689	2	<.001
	사이버불	2	-1.420	-1.849	-.991			
	예상/과거 경험	4	-.718	-1.453	.017			

표 6. 부정정서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변인	구분	<i>k</i>	<i>ES(g)</i>	95% CI		<i>Q</i>	<i>df</i>	<i>p</i>
				<i>LL</i>	<i>UL</i>			
배제 유형	거절	3	1.227	.829	1.624	13.692	1	<.001
	무시	8	.273	-.038	.585			
배제 패러다임 유형	실제 경험	3	1.227	.890	1.624	16.896	2	<.001
	사이버불	8	.273	-.038	.585			
	예상/과거 경험	3	.277	-.031	.585			

분석 결과, 배제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5). 배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무시가 거절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Q=15.215, df=1, p<.001$ ), 거절 유형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배제 유형별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사이버불, 미래 예상 및 과거 경험, 실제 경험 순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Q=44.689, df=2, p<.001$ ), 실제 경험 유형과 미래 예상 및 과거 경험 유형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정서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에서, 배제 유형,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6). 배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거절이 무시보다 효과크기가 컸으나( $Q=13.692, df=1, p<.001$ ), 무시 유형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실제 경험, 미래 예상 및 과거 경험, 사이버볼 순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Q=16.896, df=2, p<.001$ ), 실제 경험 유형의 효과크기만 유의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욕구 변인**

욕구 변인 중 관계성 욕구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배제 유형,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표 7). 배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무시가 거절보다 컸으나( $Q=34.186, df=1, p<.001$ ), 거절 유형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사이버볼이 실제 경험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Q=34.186, df=1, p<.001$ ), 실제 경험 유형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지 않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제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의 분류가 같아 결과가 동일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조절변인에 따른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효능감 욕구의 경우 배제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이 모두 하나의 유형에만 해당되어, 효능감 욕구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중 친사회성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배제 유형 및 배제 패러다임 유형도 유형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각각  $Q=.006, df=1, p=.940$ ;  $Q=3.152, df=2, p=.207$ ).

반사회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제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무시가 거절보다 컸으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Q=.910, df=1, p=.340$ ),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는 사이버볼, 실제 경험, 미래 예상 및 과거 경험 순이었으나 이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Q=2.526, df=2, p=.283$ ).

**출판편향 분석 결과**

정서 변인 중 긍정정서 변인의 출판편향 분석 결과,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이 확인되며 표준오차가 커질수록 효과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편에 대한 검증값이  $-6.332(95\% CI: -9.437 \sim -3.227)$ 로 유의하여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rim and fill 방법을 적용하여 편향의 심각도를 알아보았다. 누락된 것으로 가정된 3개의 연구를 투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  $-.464(95\% CI: -.752$

표 7. 관계성 욕구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조절변인	구분	k	ES(g)	95% CI		Q	df	p
				LL	UL			
배제 유형	거절	2	-.171	-.387	.044	34.186	1	<.001
	무시	7	-1.106	-1.333	-.878			
패러다임 유형	실제 경험	2	-.171	-.387	.044	34.186	1	<.001
	사이버볼	7	-1.106	-1.333	-.878			

~ -.177)가 교정 후 효과크기 -.063(95% CI: -.405 ~ .279)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즉, 긍정정서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교정한 후에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된 집단보다 긍정정서를 덜 경험한다는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부정정서 변인의 funnel plot을 통한 분석에서도 비대칭이 나타났으며, Egger의 회귀분석 절편이 -3.780,(95% CI: -11.099 ~ 3.539)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trim and fill 방법을 통하여 누락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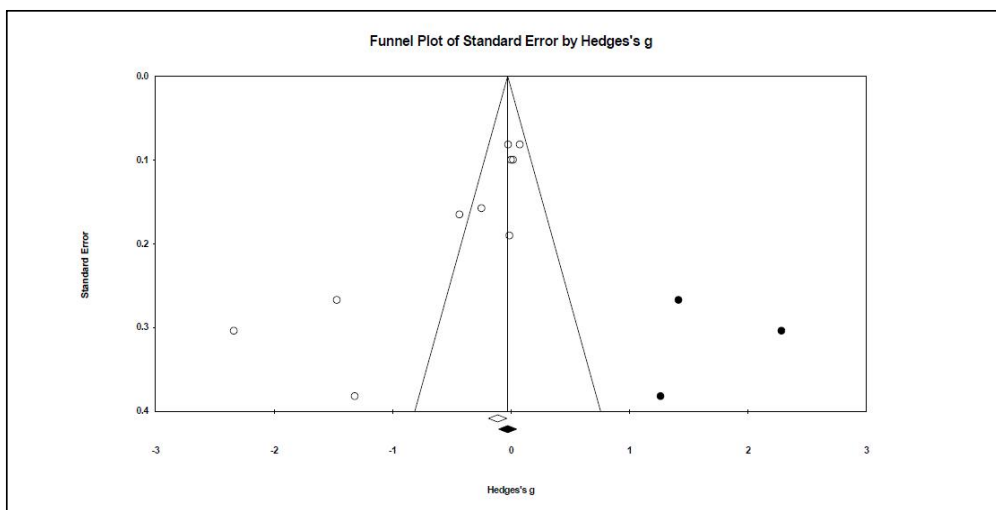


그림 2. 긍정정서에 대한 trim and fill 방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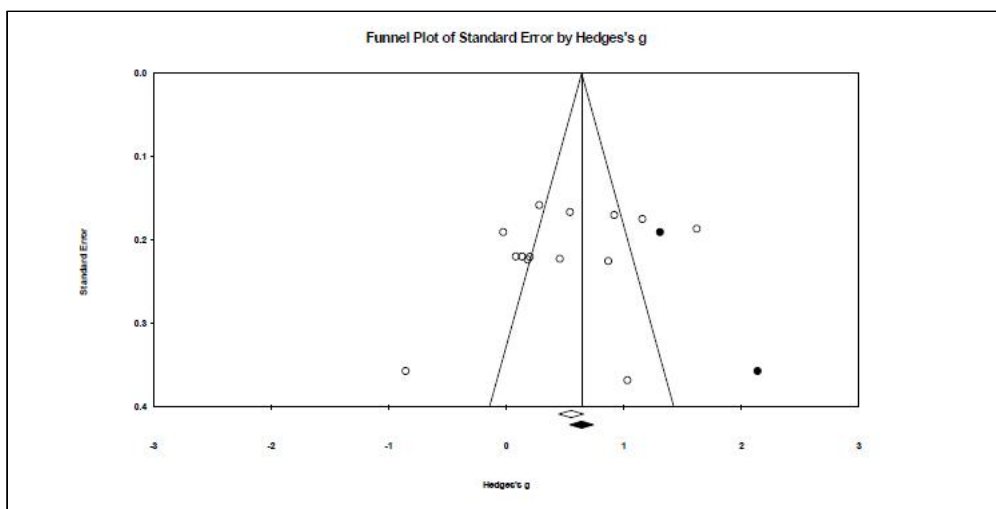


그림 3. 부정정서에 대한 trim and fill 방법 결과



으로 가정된 2개의 연구를 투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 .488 (95% CI: .195 ~ .782) 교정 후 효과크기 .626(95% CI: .325 ~ .927)로 증가하였고 여전히 유의하였다(그림 3). 즉, 부정정서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교정한 후에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된 집단보다 부정정서를 더 경험한다는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그 효과크기도 증가하였다.

기본 욕구 변인 중 관계성 욕구 변인 또한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이 확인되었고 Egger의 회귀분석에서도 절편에 대한 검증값이 -4.959(95% CI: -6.857 ~ -3.390)로 유의하여 출판편향이 나타났다. Trim and fill 방법을 적용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가정된 3개의 연구를 투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 -.897(95% CI: -1.265 ~ -.530)가 교정 후 효과크기 -.638 (95% CI: -.968 ~ -.307)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그림 4). 즉, 관계성 욕구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교정한 후에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된 집단보다 관계성 욕구에 대한 위협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는 효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였다.

효능감 욕구 변인에서도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이 확인되었고 Egger의 회귀분석에서도 절편에 대한 검증값이 -9.114(95% CI: -16.921 ~ -1.306)로 유의하여 출판편향이 나타났다. Trim and fill 방법을 적용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가정된 3개의 연구를 투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 -1.887(95% CI: -2.653 ~ -1.121)가 교정 후 효과크기 -1.138(95% CI: -1.971 ~ -.30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하였다(그림 5). 즉, 효능감 욕구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교정한 후에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된 집단보다 효능감 욕구에 대한 위협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는 효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였다.

사회적 행동 중 친사회성 변인은 funnel plot에서 비대칭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Egger의 회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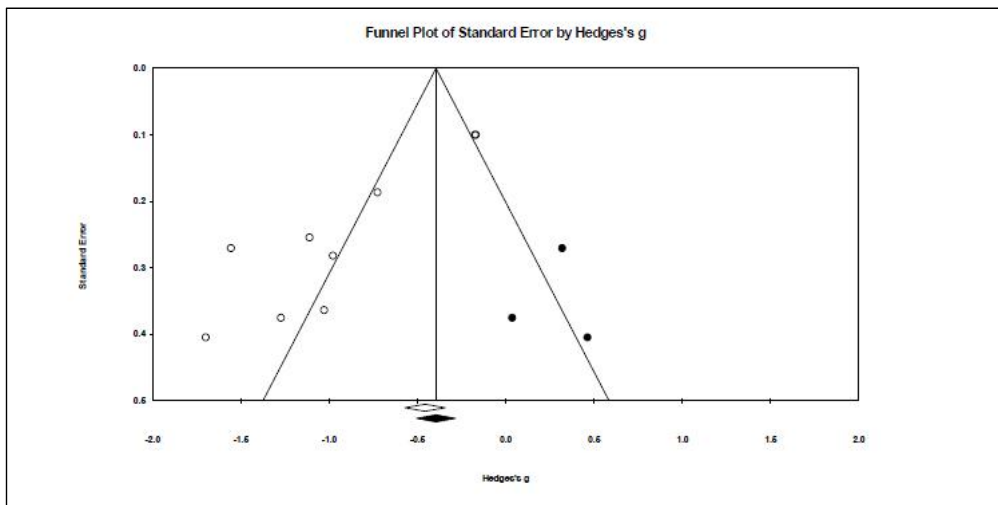


그림 4. 관계성 욕구에 대한 trim and fill 방법 결과

석에서 절편에 대한 검증값이  $-5.254(95\% \text{ CI: } -11.018 \sim .511)$ 로 유의하지 않아 출판편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사회성 변인은 funnel plot에서 비대칭이 확인되었고 Egger의 회귀분석에서도 절편에 대한 검

증값이  $12.856(95\% \text{ CI: } .616 \sim 25.096)$ 로 유의하여 출판편향이 나타났다. Trim and fill 방법을 적용한 결과, 누락된 것으로 가정된 4개의 연구를 투입하여 비대칭을 교정한 결과, 교정 전 효과크기  $.876(95\% \text{ CI: } .020 \sim 1.733)$ 이 교정 후 효과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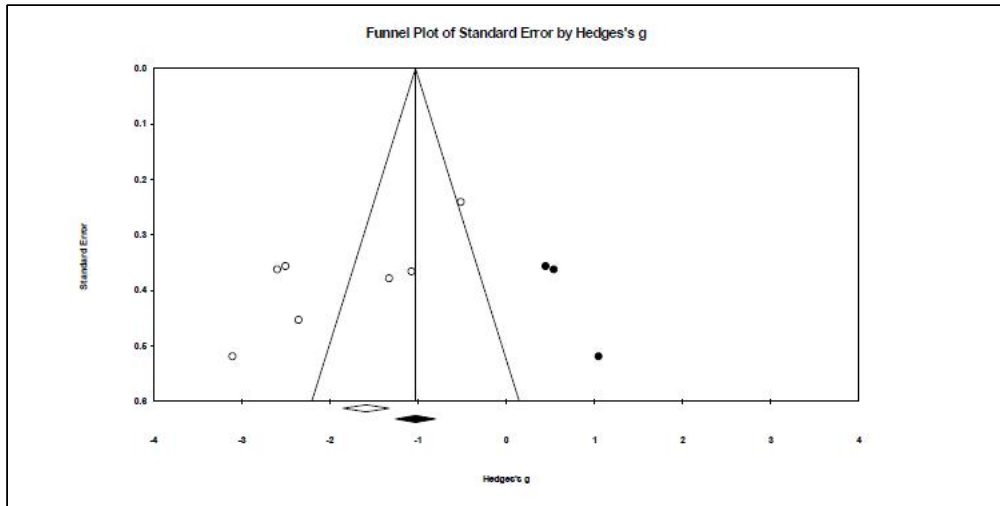


그림 5. 효능감 욕구에 대한 trim and fill 방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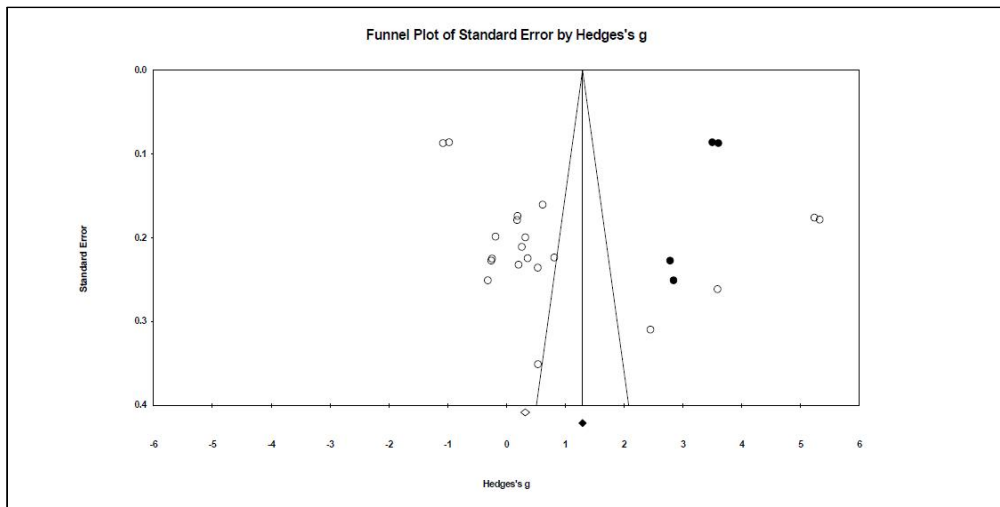


그림 6. 반사회성 행동에 대한 trim and fill 방법 결과

기 1.262(95% CI: .373 ~ 2.151)로 오히려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였다(그림 6). 즉, 반사회적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을 교정한 후에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포함된 집단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더 한다는 결과는 유의하였고 그 효과크기도 증가하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조절변인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7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중 32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총 79개의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포함된 집단에 비해 긍정정서가 감소하고 부정정서가 증가하였다. 또한, 관계성과 효능감 욕구 유형 각각에서 위협을 더 경험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효과는 배제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정서 변인과 욕구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유쾌하지 않은 정서 경험을 유발하였다. 사회적 배제 경험은 긍정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중간 정도의 효과, 부정정서를 증가시키는 데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절 직후 정서적인 무감각을 경험하게 된다는 무감각 가설(Baumeister, 2005; DeWall & Baumeister, 2006)을 지지하지 않았다.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를 대상으로 정서 측정치 평균과 각 연구의 정서 척도에서 무감각을 의미하는 척도 점수 간의 비교를 하였을 때, 긍정정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정정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각  $t(10)=1.488$ ,  $p>.05$ ,  $t(13)=2.621$ ,  $p<.05$ ). 무감각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던 다른 메타연구에서도 사회적 거절 후에 긍정적인 기분은 감소하고 부정적인 기분이 증가하였으며 각 정상태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Gerber & Wheeler, 2009). Williams(2009)에 따르면, 사회적 배척 직후에는 반사적인 단계(reflexive stage)를 경험하게 되어서 배척을 당한 직후에는 마치 반사 운동반응처럼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기분 욕구에 위협을 느끼며, 분노 혹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반사적인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숙고 단계(reflective stage)를 경험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위협에 대한 대처와 방어를 하게 된다. 사회적 배제 이후에 유쾌하지 않은 정서 경험은 이러한 반사적인 단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기본 욕구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며, 사회적 행동 중 반사회적인 행동을 증가시켰다. 사회적 배제 경험은 관계성 욕구와 효능감 욕구를 위협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반사회성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배제로 인해 친사회성 행동의 감소보다는 반사회성 행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기본 욕구를 좌절시키고 반사회성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메타연구와 일치한다(Blackhart et al., 2009; Gerber & Wheeler, 2009). 친사회성 행동에 대한 효과 크기

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에 활용된 연구의 실험 세팅에서 좌절된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친사회성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친사회성 행동은 배제 경험 이후 다시 속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 좌절된 욕구를 다시 충족시키고자 모방행동, 기부행동 등의 친사회성 행동이 나타나는데(윤나리, 2015), 본 연구에서 분석이 된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연결을 위한 대상 지각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하여 욕구 유형 중에서도 효능감 욕구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는데, 이는 분석에 활용된 연구의 대다수가 무시/배척에 해당하는 사이버불 게임을 적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무시/배척은 애매하게 자신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관계에서의 통제감을 잃게 한다. 즉, 무시/배척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어 통제감을 얻고자 하는 효능감 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에(Williams, 2001, 2007) 본 연구에서도 효능감 욕구의 감소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능감 욕구의 좌절은 반사회성 행동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좌절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된 행동을 시도하는 동기가 활성화된다(Murray, 1938; Gerber & Wheeler, 2009). 따라서, 무시/배척 경험으로 감소된 효능감 욕구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존재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도록 만

드는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배제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이 욕구 좌절에 따른 결과인지 하위집단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받은 욕구 위협을 회복시키기 위한 처치가 없거나 낮은 수준인 저조건에서는 친사회성 행동이 큰 크기로 감소하였다. Murray(1938)가 주장한 것처럼 욕구의 좌절은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동하도록 이끄는 데, 본 연구에서도 욕구 좌절이 친사회성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특성에 따라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무시/배척과 사이버불 패러다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메타연구에서도 사이버불을 활용한 무시/배척의 패러다임이 정서 각성과 자존감 위협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Gerber & Wheeler, 2009). 그러나, 부정정서의 경우 실제 경험을 조작한 거절 유형의 효과크기가 더 컸는데, 이는 명백하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부정정서의 동요(agitation)를 크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Molden et al., 2009).

메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메타분석 결과 출판편향의 가능성이 시사되어 효과크기가 실제 효과에 비해 과대 추정이 되었을 수 있다. 또한, 평균 효과크기 결과에서 각 종속변인에 대한 이질성이 높게 나타나 종합적인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사회, 소비자, 임상심리와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수행되는 주제이므로 각 연구마다 다양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종속변인 간 이

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사이버불 게임을 활용한 무시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이버불 게임이 다른 패러다임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제, 특히 배척을 유발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었으나(Hartgerink et al., 2015; Williams et al., 2000), 다른 연구 참가자와 대면하지 않고 게임 속 캐릭터로 만나기 때문에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Godwin 등(2014)의 연구에서 사이버불 게임,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과거 회상 방법, 사회적 배제를 온라인으로 대면하여 경험하는 O-Cam 방법이 기본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는데, 모든 방법이 기본 욕구의 위협을 유발하였으나 O-Cam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위협적이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가 사이버불 게임과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 요인(사회적 지지체계, 정신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영어권 문화에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Blackhart et al., 2009; Gerber & Wheeler, 2009; Hartgerink et al., 2015). 배제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사회적 일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보편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한 서구 문화 유입으로 한국인에게 자기주장성, 남녀평등의식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이 대부분 크게 증가

하였고(나은영, 차유리, 2010), 부정응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라 여겨지는 자기애(Narcissism) 특성은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 대학생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이처럼 한국인이 개인주의화 되어감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국내의 연구 모두를 포함하여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해볼 필요는 있다. 한국 문화는 동양 문화권에 속해 상호의존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포함된다(Markus & Kitayama, 1991). 국내에서 수행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작은 크기에서 중간 크기 범위에 속하는 수준으로 한국인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박혜경, 김상아, 2018). 이에 따라, 추후 독립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연구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비교한다면 사회적 배제의 문화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소상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의 개인주의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효과 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첫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수행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합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향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학문적 활용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영역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서 변인뿐만 아니라 욕구 변인과 사회적 행동 변인을 함께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었다. 셋째, 하위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손상된 기본 욕구의 조절효과를 탐색하고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특성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후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의 유형과 배제 패러다임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종속 변인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표시된 것은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임.

\*김영리, 한승희 (2014). 사회적 배제 경험이 타인과 동일한 제품을 소비하는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4), 555-577.

\*김은하 (2011). *Comparative effects of empathic verbal responses on negative affect after social exclus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지호, 이준수.(2019). “아프나 나도 아프다”: 사회적 배제와 포용 경험들이 심리적 위협 및 동조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3), 395-418.

\*김희영 (2017). 사회적 배제 경험과 감사 글쓰기 과정이 얼굴표정 해석 편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노수림 (2015). 사회적 배척 경험이 얼굴표정에 대한 해석편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신원 (2016). 사회적 거절경험이 반응적/전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박은영 (2019). 메시지 소구유형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배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경연구논집*, 10(7), 49-58.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과 세계*, 42(3), 5-37.

\*선홍청, 박세범 (2019). 온라인 상 사회적 배제 경험이 동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위챗 사용자를 중심으로. *연세경영연구*, 56(1), 1-19.

\*송호준, 김남희, 천성용 (2017). 사회적 배제와 과시적 소비 성향이 기부연계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징적 보상물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8(3), 487-510.

\*신윤철 (2020). 외로움이 AI 스피커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재윤 (2020).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배제가 접근-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오민정, 황윤용 (2015).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의 과시적 소비 관계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147-167.

\*용정순 (2008). 사회적 배척 경험과 자기-가치 확인 가능성이 피해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우지송 (2020). 사회적 배척과 자기해석이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윤나리 (2015). *The Effect of Inferred Chances for Reaffiliation on Socially Excluded Consumers' Response to Scarcity Appeals*.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국희 (2018). 사회적 배제가 추천 및 유행 상품 구매



- 의도에 미치는 효과. *마케팅논집*, 26(3), 1-18.
- \*이국희 (2019a). 가질 것인가? 별할 것인가? : 사회적 배제가 불공평한 분배자와 불공평한 이익 공유자에 대한 처벌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30(4), 135-156.
- \*이국희 (2019b). 가질 것인가? 줄 것인가?: 사회적 배제와 독재자 게임 자원 분배. *지역과 세계*, 43(3), 149-178.
- \*이국희, 최인철 (2018). 사회적 배제가 여가의 의도, 의미, 그리고 재미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연구*, 29(4), 41-59.
- 이선경, 팔로마베나비테스, 허용희,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이세라 (2019).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 환상과 분노.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세라, 신현균, 문찬기 (2020). 자기에적 취약성과 우울: 사회적 거절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83-305.
- \*이준수 (2020).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노출이 친사회적 행동 및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수, 김지호 (2020). 야 너두? 야 나두!: 무시의 경험과 관찰이 소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광고*, 21(1), 79-107.
- \*정다연 (2019). 사회적 배척 조건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공격성 양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수진 (2018). 사회적 배척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도구적 정서조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혜 (2019). 사회적 배제와 자기해석, 사회적 거리가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정 (2018). 사회적 배제 이후 경계선 성격 성향자들의 공격성.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동 (2014).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황은영 (2013). 상대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배척과 과시 및 동조 소비.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윤 (2017). 사회적 배제 경험이 여대생의 전위된 공격성의 표출에 미치는 기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eister, R. (2005). Rejected and alone. *The Psychologist*, 18(12), 732-735.
-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 (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60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lackhart, G. C., Nelson, B. C., Knowles, M. L., & Baumeister, R. F. (2009). Rejection elicits emotional reactions but neither causes immediate distress nor lowers self-esteem: A meta-analytic review of 192 studies on social excl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4), 269-309.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Borenstein, M., Hedges, L., Higgins, J., & Rothstein, H. (2013).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3) [Computer software]*. Englewood, NJ: Biostat.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Y: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Cohen, S. (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59(8), 676-684.
- Cohen, S., Kaplan, J. R., Cunnick, J. E., Manuck, S. B., & Rabin, B. S. (1992). Chronic social stress,

- affiliation, and cellular immune response in nonhuman primates. *Psychological Science*, 35), 301-305.
- Cohen, S., Mermelstein, R., Kamarck, T., & Hoberman, H. M. (1985). Measuring the functional components of social support. In I. G. Sarason & B. R.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pp. 73-94). Dordrecht, The Netherlands: Martinus Nijhof.
- DeWall, C. N., & Baumeister, R. F. (2006). Alone but feeling no pain: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hysical pain tolerance and pain threshold, affective forecasting, and interpers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 - 15.
- Duval, S., & Tweedie, R. (2000). A nonparametric “trim and fill” method of accoun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5(449), 89-98.
- Egger, M., Smith, G. D., Schneider, M., & Minder, C. (1997). Bias in meta-analysis detected by a simple, graphical test. *British Medical Journal*, 315(7109), 629-634.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 Gerber, J., & Wheeler, L. (2009). On being rejected: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rejectio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5), 468-488.
- Godwin, A., MacNevin, G., Zadro, L., Iannuzzelli, R., Weston, S., Gonsalkorale, K., & Devine, P. (2014). Are all ostracism experiences equal? A comparison of the autobiographical recall, Cyberball, and O-Cam paradigms. *Behavior Research Methods*, 46(3), 660-667.
- Hartgerink, C. H., Van Beest, I., Wicherts, J. M., & Williams, K. D. (2015). The ordinal effects of ostracism: A meta-analysis of 120 cyberball studies. *PloS one*, 10(5), e0127002. doi.org/10.1371/journal.pone.0127002.
- Higgins, J. P. T., & Green, S. (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 *Korea Loneliness Index*. Retrieved from <http://www.kcp.or.kr/user/kcp660pm/list.asp?listType=2>.
- Lakin, J. L., Chartrand, T. L., & Arkin, R. M. (2008). I am too just like you: Nonconscious mimicry as an automatic behavioral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Psychological Science*, 19(8), 816-822.
- Leary, M. R. (2005). Varieties of interpersonal rejection. In K. D. Williams, J. P. Forgas, & W. von Hippel (Eds.), *The social outcast: Ostracism,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bullying*(pp. 35-52). New York: Psychology Press.
- \*Lee, G. H., & Park, C. (2019). Social exclusion and donation behaviour: What conditions motivate the socially excluded to donat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2), 203-212.
- Lee, J., & Shrum, L. (2012). Conspicuous consumption versus charitable behavior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A differential needs explan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3), 530-544.
- Lutz, S., & Schneider, F. M. (2020). Is receiving dislikes in social media still better than being ignored? The effects of ostracism and rejection on need threat and coping responses online. *Media Psychology*, 1-2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ead, N. L., Baumeister, R. F., Stillman, T. F., Rawn, C. D., & Vohs, K. D. (2011). Social exclusion causes people to spend and consume strategically in the service of affiliation. *Journal*

- of *Consumer Research*, 37(5), 902-919.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 Group, P.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icine*, 6(7), e1000097. doi.org/10.1371/journal.pmed.1000097.
- Molden, D. C., Lucas, G. M., Gardner, W. L., Dean, K., & Knowles, M. L. (2009). Motivations for prevention or promotion following social exclusion: being rejected versus being igno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2), 415-431.
- Murray, H.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9). OECD better life index (2019). Retrieved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 Rosengren, A., Orth-Gomer, K., Wedel, H., & Wilhelmsen, L. (1993).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mortality in men born in 1933. *British Medical Journal*, 307(6912), 1102-1105.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66.
- Wan, E. W., Xu, J., & Ding, Y. (2014). To be or not to be unique?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6), 1109-1122.
- Williams K. D. (1997) Social Ostracism. In Kowalski R.M. (ed). *Aversive Interpersonal Behaviors*(pp. 133-170). Boston, MA: Springer.
- Williams, K. D. (2001). *Ostracism: The power of sil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K. D. (2007). Ostracism.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425-452.
- Williams, K. D. (2009). Ostracism: A temporal need-threat model.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275-314.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w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i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560-567.

원고접수일: 2021년 3월 17일

논문심사일: 2021년 4월 14일

게재결정일: 2021년 5월 20일

#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Min-Jo Lee                      Young-Sil Kwon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we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 size of social exclusion by sampling 32 experimental studies conducted in Korea until July 2020. The effect size was analyzed on dependent variables categorized with affect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fundamental needs (relational and efficient needs), and social behavior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was evaluated with moderators including the type of social exclusion (rejection and ignorance/ostracism) and paradigm of social exclusion (real experience, cyberball, and remembering the past and anticipating the future). As a result, social exclusion moderately diminished the positive affect ( $d=.488$ ) and increased the negative affect ( $d=.488$ ). Both relational ( $d=-.897$ ) and efficient ( $d=-1.887$ ) needs were highly intimidated by social exclusion, which raised the antisocial behavior ( $d=.876$ ), but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prosocial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The type and paradigm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affect and fundamental need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exclusion, affect, fundamental needs, social behavior, meta-analysis, effect size

## 부 록

### 메타분석에 활용된 효과크기와 연구

연구자	출판 연도	자료 유형	배제 유형	패러다임 유형	표본크기 (n)	효과크기(d)	
Guk Hee Lee, Cheongyu Park	2019	출판논문	무시	사이버불	360	친사회성	-.151
김영리, 한승희	2014	출판논문	거절	예상 및 과거 경험	72	긍정정서	.262
					72	반사회성	.496
김은하	2011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32	긍정정서	.868
					32	부정정서	.814
					32	자존감	1.143
					32	통제감	.349
					32	존재감	.204
					32	반사회성	-.244
김지호, 이준수	2019	출판논문	무시	사이버불	33	부정정서	-.594
					33	소속감	-.258
					33	자존감	-.837
					33	통제감	-.679
					33	존재감	.102
김희영	2017	학위논문	무시	실제경험	89	친사회성	.496
					89	반사회성	.805
노수림	2015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56	자존감	-.024
					56	통제감	-1.079
					56	존재감	.074
박신원	2016	학위논문	?	예상 및 과거 경험	149	긍정정서	-.975
					149	부정정서	-.013
					149	반사회성	-.025
					149	반사회성	.165
박은영	2019	출판논문	무시	예상 및 과거 경험	100	친사회성	-.249
					100	친사회성	.281
송호준, 김남희, 천성용(연구1)	2017	출판논문	?	예상 및 과거 경험	109	긍정정서	.616
					109	부정정서	-.068
					109	친사회성	.888
송호준, 김남희, 천성용(연구2)	2017	출판논문	?	예상 및 과거 경험	161	긍정정서	-2.339
					161	부정정서	2.448
					161	반사회성	-.162
					161	친사회성	.267
신윤철(연구1)	2020	학위논문	무시	예상 및 과거 경험	105	친사회성	-.726
신윤철(연구2)	2020	학위논문	무시	예상 및 과거 경험	109	친사회성	-1.470
심제윤	2020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59	친사회성	-1.556
					59	친사회성	-1.111
					59	친사회성	-.515

용정순	2008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70	긍정정서	-3.131
					70	소속감	-2.597
					70	자존감	-2.503
					70	통제감	.322
우지송	2020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82	부정정서	-.185
					82	부정정서	.201
					82	부정정서	.082
					82	부정정서	.456
윤나리	2015	학위논문	거절	예상 및 과거 경험	79	반사회성	.135
이국희	2018	출판논문	무시	사이버불	1,744	친사회성	.533
이국희(연구1)	2019	출판논문	거절	실제경험	600	긍정정서	.206
					600	반사회성	-.435
					400	긍정정서	.543
					400	소속감	.182
이국희(연구2)	2019	출판논문	거절	실제경험	600	친사회성	.189
					600	긍정정서	1.621
					600	반사회성	.919
					400	긍정정서	3.589
이국희, 최인철	2018	출판논문	무시	사이버불	400	소속감	1.158
					400	친사회성	.000
					570	반사회성	-.174
					570	반사회성	-.514
이세라	2019	학위논문	거절	실제경험	152	부정정서	.017
					152	부정정서	-.169
					152	반사회성	-.289
이세라, 신현균, 문찬기	2020	출판논문	거절	실제경험	152	부정정서	.183
이준수(연구1)	2020	학위논문	무시	예상 및 과거 경험	52	친사회성	.361
					52	친사회성	.536
이준수(연구2)	2020	학위논문	무시	예상 및 과거 경험	79	친사회성	-1.319
					79	반사회성	1.031
			거절	예상 및 과거 경험	77	친사회성	-1.699
정다연	2019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77	반사회성	-3.104
					73	반사회성	-2.355
					73	반사회성	5.326
정수진	2018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100	반사회성	-.855
					100	반사회성	-1.273
조영혜	2019	학위논문	?	예상 및 과거 경험	168	친사회성	-1.028
조은정	2018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79	부정정서	-1.328
					79	반사회성	-1.074
황은영	2013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121	자존감	5.326
황정윤	2017	학위논문	무시	사이버불	85	부정정서	5.236
					85	반사회성	-4.709

\*?는 범주화되지 않는 연구를 의미함. 범주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에는 제외됨.